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17. The deluge – part 1”**

**Scripture: Genesis 7:1-12**

**Date preached: April 26<sup>th</sup> 2026**

**Scripture: Genesis 7:1-12**

**1** Then the LORD said to Noah, “Come into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because I have seen *that you ar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 **2** You shall take with you seven each of every clean animal, a male and his female; two each of animals that *are* unclean, a male and his female; **3** also seven each of birds of the air, male and female, to keep the species alive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4** For after seven more days I will cause it to rain 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I will destroy from the face of the earth all living things that I have made.” **5** And Noah di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6** Noah *was* six hundred years old when the floodwaters were on the earth.

**7** So Noah, with his sons,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ent into the ark because of the waters of the flood. **8** Of clean animals, of animals that *are* unclean, of birds, and of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9** two by two they went into the ark to Noah, male and female, as God had commanded Noah. **10** And it came to pass after seven days that the waters of the flood were on the earth. **11** In the six hundred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the seventeenth day of the month, on that day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were broken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12** And the rain was 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나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 앞에 의로움을 □ 보았음  
아니라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새를 온 자면에 유전하게 하라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 □ 주의를 땅에 비를 □ □  
자은 모든 생물을 자면에서 쓸어버리라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가는 모든 것은 **9**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 □ 방주로 들어갔으며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아홉 날이라 그 □ □ 깊음의 □ □ 터  
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 □ □ 주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Review – Prepare the ark – Genesis 6:17-22**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we have looked in some detail at the instructions God gave to Noah concerning the ark and his preparations for the coming flood. Due to the wickedness and evil of all the human beings living at that time God had determined to take drastic action. His divine judgement was to come through a catastrophic global flood. Everyone, except Noah and his immediate family members were to be destroyed.

I spent some time last week highlighting that this was indeed a worldwide event. It was not, as some claim a localised or regional event centred in the Middle East. There is lots of evidence I could cite to support my assertion, but I'll just briefly touch upon the existence of flood narratives from around the world. Did you know that diverse people and cultures from all over the globe have legends of a great flood? The most famous of these is the “Epic of Gilgamesh” from Mesopotamia. It's far from being the only one however, we also have the “Tale of Manu” from India, the “Atrahasis Epic” from Babylonia and the “legend of Yu” from China. Would you like some more? The native American Hopi and Cree tribes both have flood legends.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Gilung People of Indonesia, the New Zealand Maori and those indigenous to Hawaii. There are also flood legends stories from South America, Africa and Europe. The global distribution of these stories, and in many case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m all support the Genesis account. How else can you explain

this collective memory people from such diverse places have of this tragic event other than to say it really was a cataclysmic global event.

Fortunately, God was not prepared to wipe out all of humanity. He had promised to spare the seed line of promise and this was to come through Noah's son Shem. Last week we spoke briefly about how God cut a covenant with Noah. In theological circles we refer to it as the Noahic Covenant. It is introduced to us here in chapter 6 but fleshed out in chapters 8 and 9. Basically God was telling Noah that if he obeyed all that God told him he had his family would be spared from the floodwaters.

God also wanted to preserve representatives from all the amazing creatures He had created. God Himself was going to send Noah two of every “sort” or “kind” of animal. I explained last time that God wasn't attempting to save every individual species. When we look at this from the vantage point of taxonomy “sort” or “kind” probably aligns with what today we refer to as genus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We considered last time what this meant for the “dog kind.” Noah was not expected to take two of every species of canid onto the ark. Two wolves, two foxes, two coyotes and two German Shepherds. In all probability God sent Noah two “wolf” like creatures. From their original DNA they would later be able to produce all the different canid species we see today. Wolves, coyotes, dingoes, African wild dogs, foxes and of course domestic dog breeds. As hard as it may be to believe all the “dog kinds” we see today derive from the two members of the dog family that God sent to the ark.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last point. God sent the animals to Noah. Some try to rubbish the story by claiming that Noah had to go out and catch the animals himself. Noah was not required to go out personally with a net to locate and capture these animals. God was the one who picked a healthy male and female and sent them to Noah. All that was required of Noah was that he house and feed them whilst they were on the ark.

As I told you last week various experts have attempted to analyse how many animals Noah may have accommodated on the ark. The figure I quoted was the one taken from “Noah's ark; a feasibility study.” The number it's author John Woodmorappe arrived at was approximately 16,000 individual animals.

That is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animals. To give you some perspective Seoul Zoo is home to around 3,000 animals. But 16,000 animals is well within the carrying capacity of Noah's massive box. It makes logical sense to assume that when it came to the larger animals such as elephants, giraffes and dinosaurs that God sent juveniles. It simply wasn't necessary to send the largest mature adults.

Noah was also instructed – by God to prepare enough food for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We are left to speculate on exactly what this entailed. Fruits and vegetables have a shelf life of a few months. Certain root vegetables can last much longer if properly stored. There is some debate whether Noah might even have been able to grow things on the ark. If foodstuffs are fermented, salted or pickled as all Koreans know they can last for much longer. Dried grass and hay can be compressed and stored in bails. Noah, lest we forget was a very wise man, more importantly he was being directed by God. So however all these things came together we can rest assured that in practice it all worked well.

Chapter six ended by telling us a vital component of Noah's character. We are told that Noah did all that God commanded him. No matter how difficult, or perhaps strange it sounded to him Noah simply obeyed. That is why he is rightly referred to as a righteous man and one who walked with God.

Today we are going to get into the actual account of the flood narrative.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와 다가올 홍수에 대비하도록 노아에게 주신 지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당시 모든 인류의 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은 대홍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홍수가 실제로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많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홍수 이야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에 대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Epic of Gilgamesh 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도의 마누 이야기, 바빌로니아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중국의 우의 전설 등도 있습니다. 더 말씀 드릴까요? 미국 인디언 호피족과 크리족 둘 다 홍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길롱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하와이 원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에도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많은 경우 서로 유사하다는 점은 창세기의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전지구적 재앙이었다는 사실 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남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은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계에서는 이를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6 장에서 소개되지만 8 장과 9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 집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한다면 그의 가족은 홍수에서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종류 kinds 의 동물들이 두 마리씩 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 species 을 개별적으로 구하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종류 kind" 는 오늘날의 분류 체계에서 속(genus)과 유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 종류 dog kind" 에 대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모든 개과 canid species 동물들을 두 마리씩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늑대 두 마리, 여우 두 마리, 코요테 두 마리, 그리고 셰퍼드 두 마리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늑대와 비슷한 동물 두 마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DNA 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모든 개과 동물 중, 즉 늑대, 코요테, 디고, 아프리카 들개, 여우, 그리고 물론 집에서 기르는 개 품종들이 홍수 이후에 생겨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개 종류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보내신 두 마리의 개에서 유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보내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아가 직접 나가서 동물들을 잡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야기를 폄하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직접 동물들을 찾아 잡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수컷과 암컷을 택하여 노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노아가 할 일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동물들을 보살피고 먹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전문가들이 노아의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을 태울 수 있었는지 분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제가 인용한 수치는 존 우드모러피의 저서 "노아의 방주: □□□□" 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약 16,000 마리의 동물을 방주에 태울 수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상당한 수의 동물입니다. 참고로 서울 동물원에는 약 3,000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 16,000 마리는 노아의 거대한 방주가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코끼리, 기린, 공룡과 같은 큰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개체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성체를 보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위해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몇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뿌리채소는 제대로 보관하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는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음식을 발효시키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절임으로 만들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말린 풀과

건초는 입축해서 묶음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 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실제로는 모든 것이 잘 작동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6 장은 노아의 중요한 성품을 보여주며 끝맺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힘들 거나 이상하게 들려도 노아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Then the LORD said to Noah, “Come into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because I have seen *that you ar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

It's often said of teachers that over time they develop a sixth sense. Even when they have their back turned to the class they can perceive that something untoward is going on. A student is fiddling with something, or passing a secret note to a friend. We had teachers at school who were famed for their uncanny ability to “see” or sense what was going on when their attention was seemingly elsewhere.

A common theme running throughout the Book of Genesis is the fact that God "sees." We read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God notices things, and then acts upon what He has observed. In Genesis 1 for example He saw that what He had made was good. And in chapter 6, He saw all of man's sinful wickedness (Genesis 6:5). It might on the surface seem like a rather obvious thing to highlight. Of course God sees and knows all things. That is what it means to be God. But often we live as if we have forgotten this important truth. Let me give you two ways this may manifest itself.

Sometimes people in life, and particularly in the church feel disheartened or discouraged. They give of their time and effort each week and are not acknowledged, praised or even thanked. So it's good to remember that though human beings may not see you God most certainly does. Your efforts are not going unnoticed. He is noting down all you are doing and preparing your eternal rewards. At other times we err when we forget that God is watching. It's all too easy to forget that God sees everything. We may think we are alone, the door may be closed and locked, the room darkened but we are not truly alone. God knows and sees what we are doing.

God had certainly been observing Noah. In a wicked and perverse generation he stood out. As God watched Noah the contrast between him and his neighbours soon became apparent. His neighbours, were wholly immersed in the rebellious culture of that time. They lived to satisfy the desires and cravings of their own hearts. What God wanted simply did not concern them. They allowed their own ideas and sensibilities to determine what was morally right. Noah was very different. Noah lived to please, honour and obey God. This included preaching and proclaiming God's goodness to his evil contemporaries. It also involved a great deal of hard work. For around a hundred years Noah had devoted himself to building and preparing the ark. During this long span of time he had never quibbled, moaned or complained. Noah's only concern lay in doing what God wanted. He lived to love and serve the Lord. Because of this attitude and approach to living God regarded him as being righteous.

As a result of this God had determined to save him from the cataclysmic event that was shortly to take place. But it was not only Noah who was to be spared. God, in His great mercy was also going to save his “household.” Exactly who this included is expanded on in future verses.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 나라**

학교 교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육감을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도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친구에게 비밀 쪽지를 건네는 것 등을 알 수 있답니다.

니다. 제 학교에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see" 또는 "느끼는sense" 놀라운 능력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sees"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관찰하신 것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이 좋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6 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보셨습니다(창세기 6:5).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부 보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나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삶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시고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문이 닫혀 잠긴 캄캄한 방에 홀로 있을지라도, □□□□ □□□□ □□□□ □□□□.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를 지켜보셨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보시면서 그와 그의 이웃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당시의 반역적인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느낌을 기준으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매우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아는 약 백 년의 시간을 방주를 짓고 준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곧 닥칠 대재앙에서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노아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자비로 그의 "가족household" 도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가족"이 누구인지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2 You shall take with you seven each of every clean animal, a male and his female; two each of animals that *are* unclean, a male and his female; 3 also seven each of birds of the air, male and female, to keep the species alive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We arrive here in verse number two at some information that some find confusing. They wonder if they are encountering one of those pesky biblical contradictions. The confusion centres around how many of each animal and bird species Noah is to take onto the ark. In chapter 6 we read the following.

**19 And of every living thing of all flesh you shall bring two of every *sort* into the ark, to keep *them* alive with you; they shall be male and female. (Genesis 6:19)**

And yet here in chapter 7 we are told that it is to be seven of the “clean” animals. So what's going on, is it two or seven?

There really is no need to be puzzled or confused. Let's work carefully through what we are being told. It's a common practice in the bible to move from the general to the specific. We saw the same thing in the creation account. In chapter one we see the big picture view of creation (the general view) and then in chapter 2 we zoom in to see what was happening specifically as regards the Garden of Eden.



I might just take a slight detour at this point to remind you that we are not living under the same dietary laws that applied to the ancient Israelites. The Lord Jesus tells us that we can eat and enjoy all foods (Mark 7:19). Nothing we consume as regards food can be considered a sin. God'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were not permitted to eat octopus, lobsters and penguins. But these restrictions no longer apply. Aren't you happy about that? Enjoy a penguin burger if that's what you fancy. Why you might ask did God impose these food laws. Partly it was to do with health and hygiene, but it was also symbolically important. It helped reinforce a very important principle.

God wanted His people to learn the important lesson that distinctions had to be made. It was necessary to make a choice. The world can very neatly divided between those who do what God wants and those who do as they please. So God was preparing a special people who sought to do what He wanted. A people who willingly obeyed Him. This obedience embraced all aspects of daily life, from clothing to worship and naturally enough to diet. Why were certain animals and birds considered clean or unclean? At times explanations are given but at other times God is silent on the reasons.

His loyal servants are simply called upon to follow the rules without question appreciating that God knows best.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still called upon to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living in a worldly or carnal way, and living in a way that is pleasing to God. There ought to be a discernable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 lifestyle and behaviour of a believer and a non-believer. We should stand out as being “peculiar” people.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 professing Christian and an avowed pagan then one really ought to question whether this “Christian” truly is saved.

Understanding all of this helps explain why the extra clean animals needed to be taken. Noah was to offer the clean animals as a burnt sacrifice to God (Gen 8:20). He did this as soon as he disembarked from the ark. So in order to preserve the “clean” animal and bird kinds extra animals were needed. It was no good sacrificing the animals that were needed to repopulate the earth. It seems therefore as if three pairs (six individuals) were released to repopulate the earth and the unlucky seventh was sacrificed to God. Some argue that it was actually seven pairs of clean animals that were taken. Meaning 14 of all the clean animals came onto the ark. A case I suppose could be made for either position.

Having extra individuals also made good practical sense. It allowed for a larger gene pool which would make for a quicker and more varied population growth following the flood. Given that shortly after the flood meat consumption would be permitted this was necessary. But aside from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it also teaches us another very important lesson as regards worship. God factored in these sacrificial animals before the crisis hit to reinforce the priority of worship. Communion with, and worship of God are always to be our top priority. Worship is not to be minimised or forgotten completely during times of crisis. Quite the opposite in fact. In times of dire need we are to throw ourselves upon the Lord and implore Him for His mercy.

동물을 정결 또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물의 외모, 성격, 생활 방식에 따라 정결한지 부정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 방식, 특히 식단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결과 부정의 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동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이러한 식단 제한을 지킨 것은 여호와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많은 이교도 민족들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했습니다. 다만, 정결한 동물들의 분류 기준은 민족마다 달랐습니다. 흥미롭게도 바빌로니아인과 아시리아인은 개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정결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율법을 받았을 당시에는 부정한 동물이 정결한 동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동물은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전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정결과 부정의 구분은 식단과는 무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제물과 관련된 의식적 정결함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

대인들을 위해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동물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음식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7:19).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도 죄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문어, 바닷가재, 펭귄 등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펭귄 버거가 먹고 싶다면 마음껏 드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식 율법을 제정하셨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건강과 위생과 관련이 있었지만, □□□□ 마가 컸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이 구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은 필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특별한 백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가까이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 말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옷차림에서부터 예배, 그리고 당연히 식단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했습니다. 왜 어떤 동물과 새는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합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때로는 설명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심을 인정하고 아무런 의문 없이 율법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 생활 방식,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 □□□□. 만약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공공연한 이교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 왜 추가로 정결한 동물들을 태워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동물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창세기 8:20). 그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결한" 동물과 새들을 보존하려면 방주에 추가적으로 더 태워야 했습니다. 새 땅에서 다시 번식할 동물들을 제물로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쌍(여섯 마리)은 땅을 다시 채우도록 풀어주고 나머지 일곱 번째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는 일곱 쌍의 정결한 동물들, 즉 각각의 정결한 동물 14 마리가 방주에 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든 알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동물 수를 확보한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큰 유전자 풀 gene pool 을 확보하여 홍수 이후 더 빠르게 다양한 후손들을 번식할 수 있습니다. 홍수 직후 육식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고려 사항 외에도, 이는 예배와 관련하여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재앙 홍수가 닥치기 전에 이러한 희생 제물을 마련하셔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기에도 예배를 경사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그분의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4 For after seven more days I will cause it to rain 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I will destroy from the face of the earth all living things that I have made."**

The ark was a huge construction project. It was as we have discovered a truly immense wooden vessel equipped with three floors and multiple internal rooms. There is some scholarly debate over exactly how long it took Noah to build. I have read varying estimates. It is difficult then to be absolutely precise but we can certainly say that it took between 70 and 100 years to complete. It is now almost ready. The final finishing touches are being added. Some colourful flags here, some stripy deckchairs next to the swimming pool there. It is at this point that God informs Noah that it will soon be time. The 120 years of waiting are almost at an end. In seven days time judgement will come.

I spoke before about God's great patience. The people of Noah's day had 120 years in which to repent of their wickedness and turn to God. All through this time period they had two powerful points of witness. Firstly, they had the preaching of Noah. And secondly they had the visual reminder of the ark. Perhaps they thought that Noah was odd, a curious eccentric. Fancy investing all this time, money and effort into this project. But at the same time wouldn't someone who seemed so devoted and sincere at least peak your interest. Even if you believed him to be crazy wouldn't you have engaged him in conversation to try and understand what he was doing? Apparently not. Noah's ministry produced absolutely no fruit. Had anyone repented and sought the Lord then God would have been merciful. They would have been given a cabin. But no one else was to join Noah and his family on the ark.

After seven days the rain would begin to fall. You may be wondering whether the fact that it is seven days is significant. The number seven in the bible is a symbolic number. It appears around 700 times throughout the pages of scripture. It is often employed to signify completion or perfection. God made the world in six days and rested on the seventh. At the end of this age there will be a seven year tribulation. The rainbow a sign of the promise of God contains seven colours.

Seven days was also the traditional period of mourning when someone died. So some wonder whether God here was pre-mourning the demise of His creation.

Noah had just one week to complete his preparation. Once the rain started it would be too late. He must have everything inside the ark which would be needed during the coming wrath of God. In just seven days the clouds would darken and then the first heavy drops of rain would descend. This occurred remember at a time in which it had never rained. So at first it probably seemed like a novelty. Hey look, water is falling from the sky. Isn't it fun, I won't need to take a shower tonight! Sales of umbrellas at department stores soared. But when it didn't stop mild concern emerged. How much rain fell before concern turned to panic. For forty days and nights it would rain without ceasing.

As you are aware I come from a country famed for its rainy and gloomy weather. The start of 2026 was particularly wet across Britain. Research from the University of Reading showed that in certain regions of the country it rained on every day bar one in January. 30 days of rain. During this very wet January 12 cm of rain fell across the country. This means that people living in the UK have some idea of what Noah experienced.

Of course during the beginning of the global flood considerably more rain than this fell. It wasn't only the rain that contributed to the great flood. As we shall later discover water was coming from other sources too. This was all necessary because as we read here it was God's intent to completely wipe all life off the earth.

Let us see how Noah responded to what he was told.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 □□ 주야를 땅에 비를 □□ □□ 지은 모든 생물을 자연에서 쓸어버리라**

방주는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방주는 3 층 구조에 여러 개의 방을 갖춘 정말 거대한 목선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다양한 추정치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완성하는 데 70 년에서 100 년 정도 걸린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마지막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헝헝색색의 깃발들이 휘날리고, 수영장 옆에는 줄무늬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때가 곧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 년의 기다림이 거의 끝 □□□□□□□□ 칠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인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120 년 동안 자신들의 악을 회개하고 하 □□□□□□□□□□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설교였고, 둘째는 방주라는 시각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를 기이한 고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이런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한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리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대

회를 나눠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사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자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방주에 탈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칠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칠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가요. 성경에서 숫자 7 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약 700 번 정도 등장합니다. 7 은 종종 완성이나 완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현 시대의 마지막에 칠년 환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전통적으로 7 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노아에게는 완성할 시간이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방주 안에 갖춰 놓아야 했습니다. 7 일 후면 구름이 짙어지고 최초의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했을 것입니다. "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재밌네. 오늘 밤에는 샤워 안 해도 되겠다!" 백화점에서는 우산 판매량이 급증했겠죠. 하지만 비가 그치지 않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왔을 때 걱정이 공포로 바뀌었을까요? 40 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비가 자주 오는 우울한 날씨로 유명한 나라 출신입니다. 2026 년 초에 특히 영국 전역에 비가 자주 □□□□. 레딩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1 월 한 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30 일 동안 비가 온 것입니다. 이 유난히 비가 자주 온 1 월 한 달 동안 영국 전역에 12cm 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영국 사람들이 노아가 겪었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홍수 초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홍수의 원인은 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보겠지만, 물은 다른 곳에서도 유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5 And Noah di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6 Noah was six hundred years old when the floodwaters were on the earth.**

Here in verse 5 we get a restating of information we already know. Noah was a good and righteous man who walked with God. Evidence of this is manifested in him obeying all that the Lord commanded. A faithful man obeys God. Noah's lifestyle modelled this faithfulness and commitment.

We live in a world that has become increasingly rebellious and inconsiderate when it comes to keeping the law or acting a civil manner. People in some places act as if the laws simply do not apply to them. Why should they pay taxes, why should they obey traffic regulations, why form an orderly queue, why pay for goods in a shop when you can simply steal them.

Korea I am happy to say is generally speaking full of law-abiding and considerate people. There are always a few inconsiderate and rude people, but as a collective Koreans are law keepers. In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this is not the case. Lawlessness and violence are increasingly the norm and the situation only seems to be worsening. The prevailing attitude seems to be as follows, I'll do exactly what seems right to me, and I'll simply ignore the laws or societal norms that I disagree with.

Many people approach the Christian life with this same kind of mindset. I can claim to be a Christian but continue to pick and choose which parts of God's Word I choose to obey. Some picture it rather like a buffet. You can take what you like from scripture and disregard the rest. This is not what we see in Noah. And it is not seen in the words of our Lord and saviour.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ohn 14:15)**

Jesus informs us here of how He will judge our devotion and commitment to Him. His evaluation is based upon what we do with His commands. How many of them are we called to obey? Is it some, most, more than half or the majority? No, if we love the Lord we are to obey all of God's commands.

We then read that at the time of the flood Noah was 600-years-old.

As we saw in previous studies Noah was 500-years-old when he fathered his three sons (Gen 5:32). Actually, as I said at the time he was 500 when the eldest son Japheth was born. Now 100 years later the flood is about to begin.

Many find the idea of a 600-year-old man constructing a huge wooden boat outlandish. They liken it to the idea of an 80-year-old man building an apartment building today. Now some 80-year-old people are very sprightly. My own mother is close to being 80 and still enjoys walking and even line dancing. Many seniors are still fit enough to work, build and construct things. But really this is the wrong comparison. Noah was 600 at a time when people were living to be 900-years-old. This means that in the antediluvian world he was a middle aged man. No one was looking at him and thinking of him as being an elderly grandfather. Let's put it in terms relevant to today. No one would find the idea of a 40-year-old man being able to work long hou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trange.

##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이 5 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노아의 삶은 이러한 신실함과 헌신의 본보기였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거나 예의를 지키는 데 있어 점점 더 반항적이고 배려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법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세금을 내야 하고, 왜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하고, 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야 하고, 왜 상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지? 그냥 훔치면 되는데.

다행히 한국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대체로 법을 잘 지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법과 폭력이 점점 더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만연한 태도는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나 사회적 규범은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15)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판단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중 몇 가지나 순종해야 할까요? 일부, 대부분, 절반 이상 아니면 대다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홍수 당시 600 세였다고 알려줍니다.

이전 설교에서 보았듯이 노아는 500 세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창세기 5:32). 믿어들 아벳이 태어났을 때 그는 500 세였고, 100 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600 세 노인이 거대한 나무 배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오늘날 80 세 노인이 아파트를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물론 80 세에도 장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80 세가 가까운데도 여전히 산책과 리인댄스를 즐기십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일하고, 건축하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노아는 600 세였고, 당시 사람들은 900 세까지 살았습니다. 즉, 대홍수

이전 시대에는 그가 중년이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40 세 남성이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7 So Noah, with his sons,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ent into the ark because of the waters of the flood.**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preparation are now at an end. The flood is imminent. So Noah and his wife along with Shem, Ham and Japheth and their wives boarded the ark. Noah's sons were approximately 100-years-old at this time.

At this time in history they were still relatively young men. Unfortunately we know nothing about any of the wives.

Let us read on and find out who else boarded the ark.

###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던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홍수가 곧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아벳과 그들의 아내들이 방주에 올랐습니다. 당시 노아의 아들들은 대략 100 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시기에는 그들이 여전히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아내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누가 방주에 함께 탔는지 보겠습니다.

**8 Of clean animals, of animals that *are* unclean, of birds, and of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9 two by two they went into the ark to Noah, male and female, as God had commanded Noah.**

God as we have established was going to save both the human race and the various kinds of animals by preserving representatives from each. Moses very carefully lists the occupants of the ark. When we looked at the creation account back in Genesis chapter 1 we noted that five different categories of creature were listed. These were sea creatures, wild animals, domestic animals, those that creep along the ground and birds. We see here that four of these five categories are mentioned as being on board the ark. Moses does distinguish between the clean and the unclean but included under this term are both domesticated and wild animals. Quite clearly sea creatures did not need to come onto the ark, and I have argued before that the same can be said for most amphibians.

As we read this account it all sound very orderly. It must have been quite a sight and sound. Imagine the scene in your mind. 16,000 animals and birds waiting to get onto the ark. Birds squawking and flapping, other animals roaring, whinnying or bellowing. All of them jostling and pushing to get up the ramp and into the single entrance to the ark. I'm exaggerating a little. Since God was in charge I do indeed think the animals filed into the ark in a nice orderly way. God had brought them to the ark and since it was His plan to save them I think He marshalled them inside. It says they came in two by two, a male and a female. Of the clean animals this was three pairs followed by a single individual. Of the unclean they entered in pairs. Once they were all safely settled inside the deluge could begin.

Let us read on.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꺠 이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서는 대표자들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여러 종류의 동물들 모두를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방주에 탈 동물들을 매우 신중하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 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다섯 범주의 생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다 생물, 들짐승, 가축,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동물, 그리고 새들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네 부류가 방주에 탔다고 언급합니다. 모세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지만, 여기에는 가축과 들짐승이 모두 포함됩니다. 당연히 바다 생물은 방주에 탈 필요가 없었고, 대부분의 양서류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매우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동물들이 방주에 타려고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16,000 마리의 동물과 새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들은 요란스럽게 울고 날갯짓을 하고, 다른 동물들은 포효하고 울부짖습니다. 서로 밀치고 부딪치며 경사로를 올라 방주의 하나 뿐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으니, 동물들은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데려 와서 방주 안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암수 둘씩 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정결한 동물들은 세 쌍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한 마리가 따라 들어가고, 부정한 동물들은 모두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 대홍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 **10 And it came to pass after seven days that the waters of the flood were on the earth.**

Everything is on schedule. The Lord is perfect in His time-keeping. He had said that in seven days the flood would begin and now seven days later it starts. This means that Noah and all the animals were onboard the ark for a week before the rain began. This is an interesting detail. It demonstrates Noah's great faith.

All his neighbours who perhaps questioned his sanity really must have thought he'd gone mad. It's often said that Noah was mocked and ridiculed by the people of his day. The bible neither confirms nor denies that this took place. It certainly isn't inconceivable that it did occur. People even today are often mocked or ridiculed for having strong faith and a commitment to God's Word. At times, they are even persecuted for it.

In the UK for example Christians have been arrested for silently praying outside of abortion centres. Let that sink in for a moment. Followers of Christ have faced censure and arrest for standing peacefully against the murder of innocent victims. What a truly wicked and depraved world we live in.

So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Noah's contemporaries thought him strange. Not only had he spent decades constructing a large wooden box but now he had gone aboard along with thousands of animals. What on earth must he be thinking? Noah of course was thinking that he must do as God commanded.

This same reality applies to us today. The world may think us strange and weird.

Why don't you get drunk and party? Why do you waste your time in prayer or going to church? Why do you give your precious resources away to help strangers?

The answer is because we love the Lord and want to live in ways that please Him.

###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칠 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칠 일 후에 실제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부터 방주 안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는 노아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노아의 이웃들은 그가 마침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는 . 때로는 그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낙태 시술소 밖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한 아기들이 살해되는 것을 평화롭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당연히 그를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나무 방주를 짓는 데 매달리더

니, 이제 수천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그 안에 올라 탔어.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거야?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 술에 취해 파티를 즐기지 않는거야? 왜 기도하고 교회에 가느라 시간을 낭비해? 왜 소중한 재산을 낯선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자?

그 답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사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1 In the six hundred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the seventeenth day of the month, on that day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were broken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What stands out to you about this verse? I'll tell you what leaps out to me, it's the specificity. Moses is careful to record a very precise chronology. Why you might wonder does it matter. The all important truth is that God sent a flood that destroyed everything. Do we really need to know the exact day of the month it occurred? Here's why its important.

Legends, myths and fables lack such specificity. They don't contain precise details that allow us to pinpoint when they took place. They begin with nondescript terms such as, "Once upon a time," "long ago," or "In a far off distant land." This is because they are made up stories. They did not really happen. They exist only in the minds of their creators. The global flood really happened and therefore a precise time frame can be applied. Moses gives us these details because this was when these things really happened. It serves to give the report authenticity.

Moses as we have seen was 600-years-old at the start of the flood. Some of the older commentaries try to pinpoint when exactly during the year this was. The verse seems to suggest that the flood occurred in the year that Noah turned 600, and in particular, the 17<sup>th</sup> day of the second month of that year. The problem then lies in knowing how this year was measured? The Mosaic calendar began in the spring. So if one takes this view the flood began in late April or early May. The problem is that God's people didn't adopt this way of measuring the year until after the Exodus. So it may be referring to the civil or agricultural year. The agricultural year began with the start of sowing in Autumn. If one takes this view it means the flood probably began in September or October.

In truth, it is not really all that important in what month the flood came. It seems as though the whole flood narrative is calibrated with respect to Noah's life. We read about the timings of things in regard to when he had his eldest son, and how old he was when the rain came. So I think we can conclude that the flood occurred on the 17th day of the second month from Noah's 600th birthday.

It was on this day that,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were broken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This description is very important. You may have heard people say that it is impossible for it to rain continually for this period of time, and for there to be enough water to cover the entire globe. Actually this is not true. The total volume of water on the planet is estimated at 1.386 billion cubic kilometres. Most creationists believe that the mountain ranges we see today came about as a result of the massive upheaval of the global flood. So prior to the flood the earth was much smoother, and the mountain ranges far less pronounced. Assuming a perfectly flat earth the water now present on the planet would cover the earth to an average height of 2.61 km. So there would have been enough water.

The sceptics making these claims are basing their assumptions on today's conditions. They are guided by the principle of uniformitarianism. This is the belief that the same natural laws and processes that operate today have always operated in the very same way. As Christians, we reject this assumption. We understand that the earth was different in the past.

We should remember that God created the earth in a particular way. Or let me rephrase that, God had built into the fabric of creation the instrument for its destruction. The firmament was designed as a blessing. But when human beings fell and rejected God He used it as a means of judgment.

Back when we looked at creation we saw a division of the waters on day two. God placed some of the water above the earth in the firmament, the rest He lef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most importantly here vast quantities were housed underneath the surface of the earth. This water was trapped under the earth's crust in the mantle. The earth's mantle is around 2800 km thick which means it can accommodate a lot of water. You may be interested to learn that geologists calculate that the rocks in the mantle still contain within their mineral structure enough water to fill the oceans at least ten times over.

At the time of the flood God tapped into (pun intended) both of these water sources. The fountains of the deep broke open. This is probably referring to a breaking apart of the mantle and the earth's crust to allow this trapped water to gush out. The firmament, a vapour layer that encircled the earth easily provided enough moisture for the 40 days of constant rain. So please put from your mind the idea that the flood was a slow gentle rising up of the waters. That the ark just bobbed along and that Noah was out on the roof of the ark sitting in a deck chair. The flood was a violent, seismic tumultuous event that forever re-shaped the geology of the earth.

Let'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때 깊음의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구절에서 무엇이 가장 눈에 띄나요? 저는 바로 구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아주 세심하게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홍수를 보내셨다는 것인데, 그 정확한 **□□□□□□ □□□ □□□□**?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설, 신화, 우화는 이처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 "머나먼 땅에서"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전설이나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작자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홍수는 실제로 일어 **□ □ □□ □□ □□ □ □ □□□□** 모세가 이러한 세부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때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록의 신빙성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대홍수가 시작될 당시 600 세였습니다. 일부 예전의 주석가들은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본문은 노아가 600 세가 되던 해, 특히 그 해 둘째 달 17 일에 홍수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의 달력은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는 4 월 말이나 5 월 초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야 이러한 연도 계산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민간력이나 농업력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력은 가을 파종이 시작될 때 시작됩니다. 이 관점을 따른다면 홍수는 아마도 9 월이나 10 월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어느 달에 일어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야기 전체가 노아의 생애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만아들을 낳은 시기와 비가 내릴 당시 그의 나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600 번째 생일로부터 두 번째 달 17 일에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 □□ □□ 깊음의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이 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려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의 물이 있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총 물의 양은 약 13 억 8,600 만 세제곱킬로미터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창조론자들은 오늘날의 산맥들이 대홍수로 인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 표면이 훨씬 평평했고 산맥도 높이가 훨씬 낮았습니다. 지구가 완벽하게 평평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지구를 평균 2.61km 높이까지 덮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충분했습니다.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회의론자들은 오늘날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가정을 세웁니다. 그들은 균일론 uniformitarianism 이라는 이론을 따릅니다. 균일론이란 오늘날 작용하는 자연 법칙과 과정이 과거에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구가 현재와 달랐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특정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구조 안에 파괴의 도구를 마

련해 두셨습니다. 궁창 firmament 은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조 과정을 보면 둘째 날에 물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의 일부를 땅 위의 궁창에 두셨고, □□□□□□□□ 에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양의 물을 땅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물은 지구의 지각 아래 맨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구 맨틀의 두께는 약 2800km 에 달하므로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계산하길 맨틀의 암석 구조 안에 바다를 최소 열 번 이상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존재한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홍수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수원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 깊음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아마도 맨틀과 지각이 갈라져 갇혀 있던 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층인 궁창은 40 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리도록 충분한 수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물이 서서히 그리고 차분하게 차오르는 홍수의 모습이나, 방주가 뚝뚝 떠다니고, 방주 지붕 위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노아의 모습 같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홍수는 격렬했고 지진과 같은 대격변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지구의 지질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12 And the rain was 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

Once the rain started it did not let up for 40 days. God had determined to blot out all living things and He always does what He says.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continue on with the flood narrative.

## 12 □□ 주의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40 일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다음 주에도 홍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one lesson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God's desire is to save

Often unbelievers will point to the actions of God in the Old Testament as evidence that God is mean, cruel or unkind. Look they say, pointing to the account of the flood. God happily condemned millions, perhaps billions of innocent people and animals to their deaths. How can you love and worship such a being? You may have had people say such things to you. How did you respond?

Is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mean vindictive and merciless? The answer is no. First off there is no God of the Old and God of the New Testament. It's the same God. The God who condemned a wicked and rebellious world to death in the flood is the same God who suffered and died in our place upon the cross. Secondly, don't we all believe in fairness when it comes to justice. Isn't it fair that the guilty are punished for their crimes. The punishment for sin, for breaking God's law is death. The people of Noah's day were found guilty. There was nothing unfair or unjust about it. They broke they law and received the rightful punishment. We, too, are sinners who break God's laws so is it not right that we too deserve to be punished? The answer is yes. We deserve death.

And yet God stepped in. This mean, merciless and vindictive God stepped in and provided a means of escape. A way in which one can be saved. In Noah's day He provided an ark. It was open to all who placed their faith and trust in Him. Climb the ramp and enter the door to avoid God's wrath. Later He provided the Lord Jesus Christ. Anyone who places their faith and trust in Him can also avoid God's wrath.

We love and worship a God whose desire is to save. In 1<sup>st</sup> Timothy chapter 2 we read.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r, 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1 Timothy 2:3-4)**

This is a declaration made about God’s heart and desire towards mankind. Wicked and depraved as we all may be God loves us and wants us to turn to Him. Let us be joyful and proclaim to a lost and needy world that there is an escape. We believe in a God who desires to save. Come to Him now and be saved.

## **1 하나님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종종 불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을 예로 들며 하나님이 심술궂고 잔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홍수 이야기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수백만 어찌면 수십억 명의 무고한 사람과 동물을 기꺼이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어떻게 그런 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심술궂고 보복적이며 무지바한 분일까요? 물론 대답은 "아닙니다."

먼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궤약하고 반역적인 세상을 홍수를 통해 파멸하신 하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공평한 정의를 믿지 않습니까?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마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궤약하고 무지바하며 보복적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방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경사로를 올라 방주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디모데전서 2 장에서 기록하길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궤약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끄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3-4)**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가 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잃고 고통받는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분께 나아와 구원받으십시오.

